

전남권 최초 반려동물문화센터, 순천시 개관

지상 4층 건물 2년 2개월 공사 거쳐 5월 준공

반려 유기 동물 공공진료소·실내 놀이터 등 구성

순천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일류 순천'을 선언하고 시민과 동물이 더불어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건립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반려 유기 동물 공공진료소)를 문을 열어 가동에 들어갔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역전길에 자리 잡은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부지 3104㎡, 건축 전체면적 2689㎡의 지상 4층 건물로 2021년 3월 착공해 2년 2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5월 준공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그동안 집기 비치 및 동물보호 시설 등 개관시설을 마치고 개관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주요시설은 반려 유기 동물 공공진료소와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 체험학습실(기초 미용,

간식 만들기 등 실습 교육), 교육실, 영상교육실, 입양상담실과 시민 휴식 공간을 갖췄다. 반려동물 실내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실과 중 소형견 놀이실을 구분하는 등 반려견 친화를 위한 구조로 구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반려인으로서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워 반려동물과 마음 놓고 뛰놀고 동반 입장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아와 부지 공간을 확충해 반려동물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놀이터를 조성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감하는 펫티켓 문화를 정착해 모두가 살고 싶어 할 만한 생태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개관식은 노관규 순천시



장과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성홍 청암대학교 총장, 이성기 순천광양축협 조합장, 지역 주민과 반려인들이 참여했다. 개관 특별행사로 풍덕초등학교의 너른들 합

창단의 동물을 주제로 한 동요 합창과 유기동물 입양문화에 함께 하자는 뜻의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군,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 대책 추진...9월30일까지

보성군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재난 안전·복지 부서 및 12개 읍·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관내 410개소의 무더위쉼터 내 냉방시설(에어컨, 선풍기 등) 작동 여부, 청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무더위쉼터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연계 추진하고 폭염 대비 군민 행동 요령 안내, 부채, 쿨 도시, 쿨 스킨 등 폭염 피해 저감 홍보물 배부를 통한 군민 안전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방문보건인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체크 및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보성읍, 벌교읍 전통신장 주변 및 주요 도로에 살수차 2대를 운행해 폭염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지역 내 횡단보도 등에도 폭염 그늘막(스마트그늘막) 13개소를 설치했으며, 폭염 특보 시 야외 활동 자제 안내 문자 발송과 마을방송 등 다양한 피해방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보성=김명순기자



광양시, 8월 8일 '섬의 날'에는 '배알도 섬 정원'

광양시가 다가오는 제4회 섬의 날을 맞아 섬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배알도 섬정원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낼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무한(∞)가능성을 상징하는 8월 8일을 기념일로 삼는다.

광양 배알도는 자연의 생태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바다에 둘러싸인 섬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다.

0.8ha, 25m 규모의 배알도는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떠 있는 섬으로 대동여지도, 여지도서 등에 사도(蛇島)로 표기돼 뱀섬으로 불리다가 망덕산을 향해 배알하는 형국에서 그 이름을 얻었다.

배알이라는 낱말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뒷사람을 만나 본다'는 의미 외에도 자기만의 생각이 자리 잡은 '가상의

처소'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배알도는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가상의 처소'로 자신과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었던 셈이다.

푸른 바다 위를 건너는 별헤는다리과 해맞이 다리는 배알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낭만 해상길로 밤에는 은은한 별빛야경을 자랑한다.

오랜 시간을 굶은 고목과 푸른 잔디가 웅덩이처럼 펼쳐진 섬 마당이 주는 여백의 미, 해상보도교의 유려한 곡선미는 편안함을 안겨준다.

정상에 있는 해운정에 오르면 정자를 받치고 있는 네 개의 기둥은 질푸른 바다와 고딕한 소나무를 운치 있게 담은 액자가 된다.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자랑하는 배알도는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놀병에 빠지기에 제격이다.

광양=김현근기자

고흥군, 청년센터 '청춘누리' 8월부터 무료대관

자립기반·소통·교류·정책참여 등 청년 권익증진 위한 공간 만들 것

고흥군은 청년들의 교육·문화·소통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청년센터(청춘누리)를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8일부터 무료대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센터(청춘누리)는 고흥읍 구(舊) 소방과출소 건물을 국비 지원받아 리모델링해 사무실·공유오피스·공유주방·다목적실·쉼터 등을 갖춘 청년 소통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21년' 문을 열었다. 현재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고흥군지역대가 입주해 있다.

개소 이후 청춘누리에서는 취·창업 교육, 일자리 상담, 예술전시, 원데이 클래스 등 지역 청년들의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취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이에 더불어 지역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소모임 등을 결성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들만의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 대관이 계획되었다.

대관신청은 고흥 청춘누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kkim6603@korea.kr)이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해 평일 10:00~18:00까지 무료 대관이 가능하다. 평일 야간과 토요일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이용 대상은 고흥군에 거주하는 청년(18세~49세)이거나 고흥군 거주 청년이 50% 이상 참여한 단체로, 1일 최대 4시간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단, 상업적 행위, 정치목적적, 종교적 행사, 특정 이념 전파 등의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거나 취소된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청춘누리 무료대관과 함께 고흥청년 아카데미, 청년 문화의 날, 청년단체 네트워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활동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청춘누리가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청년 복합 문화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 수산시장 3 공영주차장 준공...8월 한달 간 무료개방

지상 2층 148면 주차타워 조성

여수 수산시장 3 공영주차장이 지난 7월 준공됨에 따라 8월 한 달 간 무료개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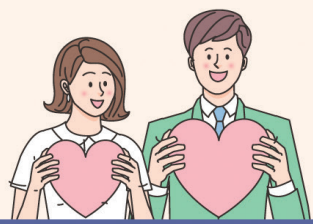
'수산시장 3 공영주차장'은 남산동 1165번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확장형 121면과 경형 16면, 장애인 3면, 교통약자 6면, 기타 2면을 포함 총 148면의 2층 3면 주차타워로 조성됐다.

특히 교통시장과 수산시장, 수산물특화시장 모두 인접 위치에 시장과의 접근성을 확보했고, 주변 지리적 여건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에 이달까지 무료개방을 통한 1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낱말이 증가하는 방문객과 관광객의 주차수요를 기존 수산시장 옆 주차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번 주차장 추가 운영으로 시장 내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김현근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